



‘절반의 힘’을 잘 살리자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53%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중 61%는 여성이며 다시 그 중에서 47%는 불교로, 개신교나 가톨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러나 수적 우위에 비해 피부로 느껴지는 여성 불자의 사회적 위상은 다른 종교에 비해 오히려 뒤쳐지는 느낌이다. 교단 내 입지도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속을 막론하고 여성 불자의 참여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뒷받침하는 제도 때문이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지난 2003년 비구니스님에 대해 차별적인 종헌·종법 개정을 중앙총회에 제안한 바 있다. 교계 언론에서도 불교계 성차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불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차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최초로 비구니스님을 문화부장관 임명하였고, 비구니부 신설을 공약하였으며,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거듭 그 추진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임명 당시에 문화부장관 임명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임명장을 받지 못했고, 종회의 등의를 받아야 하는 비구니부 신설 여부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이 있다.



중단·단체 여성불평등 여건 공론 모아 ‘인식과 틀’ 바꿔야

예를 들어 조계종의 경우 비구니스님은 일반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산중총회에서나 총회에서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소수의 비구니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종헌·종법에 명시된 각종 중

별적 관행과 여건 요건을 비공론으로

다. 현대종의 경우 정초 기도에 비구니스님을 비롯한 여성 불자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재가불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도적인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중앙신도회나 교구신도회 회장은 전부 남성이다. 포교사단도 지금까지 대구에 단 한 명의 여성단장이 있었을 뿐이다. 중앙총무기관 중무원의 경우에도 직급별 성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역사의 부산물로 존재하는 일부 계층과 경전에 근거한 뿌리 깊은 여성 폄하적인 사상,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화합 통한 종단 발전에 박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취임 1년 기자간담회

2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불교계 언론사 대상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내용 요약.



종단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사진=박재원 기자

▶3월 임시총회를 앞두고 열빈자 사면에 대한 생각은?

—종정 스님의 교시는 ‘원융화합’이었다. 사면에 화합 측면에서 해야지 아니면 종단 소용돌이도 배제할 수 없다. 화합만 이뤄지면 종헌 개정을 통한 것인데 어떤 것이든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며 포용하는 것인가.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불자수가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불자수가 줄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 각오가 돼 있느냐. 2%가 줄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불자수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난과 청년 실업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과거는 건설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오늘의 고통을 고통이라 생각하면 미래는 없다.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겨울이나 이정표라고 생각하면 고통은 쉽게 허물어질 것이다.

▶승가교육 개선과 관련해 어떻게 새로운 틀을 짤 것인가?

—승가교육제도 개선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세미나 등을 개최해 새로운 인재 교육을 위한 제도와 틀을 마련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기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그렇지

스리랑카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불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의지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다.

▶17대 총선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은?

—정치인들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성직자가 낙선이나 지지 운동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인의 길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종교에서 정치적인 단체를 만든다고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불자들이 스스로 되돌아보며 후보자들을 해안으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3세계 불교 지원은?

—지난 번 스리랑카 방문 때 ‘신용 종교가 들어와 스님들을 공부시키고 나면 다른 종교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 스리랑카도 생활불교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는 비판

못하다. 옛날에는 성직자들이 수행만 하면 됐지만 현재는 수행과 사회교화를 동시에 해야 한다. 교육제도 개선은 ‘새로운 승가상구현’에 다름 아니다.

▶7면에서 이어짐

수좌화는 “전국선원 수좌들이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총림이 이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선종가풍이 계승되며 수행풍도가 진척되는 법 중심의 교단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소박하고 정당한 주장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종단이 이 시대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올해 핵심사업 내용은

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발표된 2004년 핵심사업 과제 중 △승려 노후복지기금 마련은 ‘자비의 보람 나눔 운동’을 통해 각 교구 본사에 노스님 거거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계사 사면·복권·경감 추진은 올 3월 열리는 임시총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통불교문화지원센터 건립은 전통 불교문화와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마련된다. △승단 수행 체계 정립은 간화선을 포함한 제반 수행법에 대해 불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제포교의 활성화와 국제전문인력 양성은 사회부에 국제업무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 전문화 및 효율화를 추구한다. 한편 회의에서 분말사 지원을 위한 현안 파악과 종단 정책 과제 설정·공유 등을 위해 교구 분말사 주지 및 신년대차장 신년 간담회를 추진기로 했다. 올 2·3월 진행되는 교구 분말사 신년간담회는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집행부에서 참석해 분말사 주지 스님과 신도회장 및 지역 불교단체장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등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남동우 기자

Table with 2 columns: 분야 (Area) and 세부사항 (Details). Rows include: 제도개선 (System Improvement), 사회 (Society), 문화 (Culture), 교육 (Education), 포교 (Evangelism), 복지 (Welfare), 기타 (Others).

本紙 제4기 논설위원 위촉

△진월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월암 스님(동국대 강사) △구승희(동국대 교수) △김상득(전북대 교수) △박경준(동국대 교수) △박문석(중앙대 교수) △배광식(서울대 교수) △안옥선(순천대 교수) △윤범모(경원대 교수) △이병인(필양대 교수) △이우상(대진대 교수) △정병모(경주대 교수) 이상 12명

고침

본지 461호 1면 ‘불교인구·활동 줄었다’ 기사의 ‘종교인구 비율’ 그래프에서 파란색 막대가 1999년도 종교인구 비율이기에

바로잡습니다. 7면 지방세계 기사에 나오는 초우 스님은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정립한 초의(1178~1866) 스님의 오기(誤記)입니다. 22면 기사 내용 중 책 제목을 <다시 쓰는 태리>로 바로잡습니다.

방장 어떻게 추대되나?

총림 방장은 종헌 104조에 의거 총림을 대표하며 그 지도감독권을 갖는다. 방장은 종헌 제105조 ‘방장은 산중총회의 추천으로 중앙총회에서 추대한다. 방장의 전여 임기가 6개월에 달하거나 권위 상실 등의 경우에 산중총회를 소집한다.’

방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 산중총회법 제93조에 ‘중앙총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 고유의 방식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산중총회는 교구본사가 소재하는 산중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되는 최고 심의 의결기구를

말한다. 교구본사 주지가 산중총회 의장이 되며, 의장이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산중총회 관장사항으로 중앙총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 등이 있다. 방장의 전여 임기가 6개월에 달하거나 권위 상실 등의 경우에 산중총회를 소집한다.

방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 산중총회법 제93조에 ‘중앙총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 고유의 방식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남동우 기자

성명서

한국불교계가 회복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데서 자신을 속이고 대중을 속이고 부처님을 속이며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명예와 이권에 눈이 멀고 욕망의 쇄사에 묶여서 출가정신은 실종되어 모양만 출가승이고 무늬만 불교교단이란 허울 속에 온갖 비리와 병폐는 파생되며 나도 썩고 너도 썩고 교단전체가 썩어 들어가 불조와 대중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가슴에 되새기고 항상 새롭게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조와 역사 앞에 진실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불교가 살아나고 부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불교현실은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파당을 짓고 이해에 따라 서로 얼굴을 붉히는 반불교적 행태가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 우리 수좌들은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좌들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모모 총림에서 새 방장스님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총림의 방장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수행자의 표상으로서 사부대중의 귀의처가 되고 총림대중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며 남자의 공부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분을 말합니다. 소금은 짜야하고 설탕은 달아야 합니다. 소금이 짜지 않고 설탕이 달지 않으면 소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총림의 방장이 위와 같은 방장의 위상과 막중한 책무는 저버리고 본사주지 추천권을 행사하는 권력의 자리로만 여기는 작금의 행태는 한국불교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선원과 수행 풍토마저 무너지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선원수좌회 대중은 최근 모 총림의 사려 깊지 못한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이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 방장으로 추천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은 자신이 정말 방장으로서 자책을 갖추고 있으며 부처님 법과 선종사와 종헌에 나타나는 방장의 위상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양심적으로 살피시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방장을 모시려는 산중의 대중들은 문종적 이해관계로 산중의 이권에 의해 자파의 어른을 모시려는 비불교적이고 세속적인 판파기식 행위를 지양하고 출가승단과 선종가풍의 전통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는 종헌 10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방장은 선·교·울을 겸비한 본분종사라야 한다’는 종헌사항을 준수하여 총회의 권위와 교구권한에 흠결이 나지 않도록 총회의 추대권을 엄정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국선원 수좌들의 이러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져 총림이 이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선종가풍이 계승되며 수행풍도가 진척되는 법 중심의 교단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종단이 사부대중과 이 시대 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우리의 소박하고 정당한 주장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을 엄중하게 밝혀둡니다.

불기 2548(2004)년 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